

불심시심 (9)

더함도 덜함도 없다

少者添一歲 (소자첨일세) 어린이 한 살 더하고
 老者減一年 (노자감일년) 늙어가는 한 살 감했으면 하나
 非干老少者 (비간노소자) 늙음이 어린이할 것 없이
 無減亦無添 (무감역무첨) 덜함도 없고 더함도 없다.

윗 시는 고려 조계종의 제2세 진각국사의 정월 초하룻날 상담법어이다. 법어이니 진리의 말씀이다. 시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함에도 여기서 시로 소개하는 것은 언어적 결합이나 내용이 시로 수용하여도 흠될 것이 하나도 없다. 여기에 불교의 선이 시와 쉽게 만날 수 있고 그러기에 선시(禪詩)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진각국사께서 설날 당에 올라, '오늘 아침에는 시절에 따른 인연을 들어 말하리라' 하면서 위와 같은 시적 법리를 말씀하시는데, 더하거나 덜하는 것이나, 더함이나 덜함도 없다는 그 생각 자체를 모두 집어던져라 하였다. 큰 스님의 설날 설법으로 두고두고 새길 만한 말씀이다.

설날 그름과 정월 초하루의 시간 거리는 그야말로 찰나의 순간이건만 사람사람의 느낌은 그 처지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름날의 아침밥상이나 초하루의 아침밥상이 다 같은 밥상

건봉사 복원사업추진

10억 지원받아 3월부터

강원도 고성군 거진읍 건봉사(주지 현소)는 고성군(군수 장삼국)의 지원하에 올 3월부터 건봉사 복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 공사는 지난 93년부터 계획된 고성군의 '건봉사 복원 10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도·군에서 지원되는 4억원과 건봉사 자체부담금 5억8천2백만원의 예산으로 집행된다.

김영만 목판화전

다보빌딩 25일까지

광주에서 활동중인 판화가 김영만의 목판화전이 13일부터 25일까지 마포 다보빌딩 4층 서남미술관에서 열린다.

지난해 판화집을 간행하고 기념전을 광주에서 가졌던 김씨는 이번 서울전에서 「고향가는 길」, 「생사윤회」 등의 작품을 내놓는다. 김씨는 목판화뿐 아니라 유채 수채, 파스텔화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생명의 본질 찾기에 몰두해 왔다.

이요, 마주 앉은 할아버지나 손자도 다 같은 그 할아버지 그 손자일터인데 할아버지는 한살 더 먹었으니 더 늙었다하여 서글퍼하고 손자는 더 컸다 하여 즐거워 한다. 딱 한 그릇 앞에 놓고 느끼는 시간의 개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것인가. 시간의 거리를 향시 변함 없이 같은 것이라면 그 시간을 대하는 사람 사람의 느낌은 그야말로 찰나와 영점의 거리로 무상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너의 처지, 너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에 스님은 너의 체지대로 느끼는 그 생각, 더했으면 덜했으면 하는 그 생각을 저 멀리 집어던져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가 없을 때 딱국을 마주하고 있는 할아버지와 손자의 마음은 같아질 것이요, 마음이 같았으니 손자와 할아버지라는 시간 거리가 없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심세 고급의 긴 시간도 찰나에 수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종찬 (동국대학교수)

이종찬 (동국대학교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을까. 미술활동을 통해 수행과 포교의 길을 개척해 온 스님들은 올 한해에 다양한 개인전 단체전은 물론 해외 전시도 구상하고 있다.

영화 '리틀부다' 대성황

호암아트홀에서 상영 12일째 만에 3만천여명의 관객을 동원한 '리틀부다'가 연말 대성황을 이루고 있다.

구립 30일 열린 특별사회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필주스님은 "서운 말과 훌륭한 영상으로 인생의 무상함과 드높은 정신세계를 그려내 훌륭하고 향락에 찌들고 이기주의와 자기중심주의에 멍든 현대인들에게 큰 위인이 될 것"이라고 평했다.

성보문화재 관리 "종단 앞장서야"

한국불교문화원 설문, "관리 안되고 있다" 95%

절대다수의 불자들이 성보문화재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같은 통계는 한국불교문화원(원장·홍무홍)이 구립 16일부터 20일까지 남녀 불자 2백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보문화재 인식에 관한 설문'을 통해 나타났다.

이 설문에 응한 응답자는 불교에 일관한지 1년내내(46명)에서 5년이상까지의 불자들이며 연구원은 "불교 문화유산에 대한 재조명과 불자들의 성보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파악을 위해 설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설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성보문화재 관리에 대한 불자들의 의견.

응답자중 36%가 매우 안되고 있다고 답했으며, 59%는 안되고 있다고 답해 성보문화재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가 9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10월이후 원각사지탑과 경천사지탑의 훼손이 사회적 관심사가 됐으며 교계내에서 성보문화재 관리의 허실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성보문화재 관리에 대한 현재의 비판적 견해는 '앞으로는 어떤

개'란 불음에도 그다지 희망적이지 못한 쪽으로 답한 사람이 56명으로 2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현재와 같은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은 1백24명(44.6%)인데 반해 좋아질 것으로 전망한 사람은 98명(35.3%)에 그쳤다.

그러다면 성보문화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종단이 앞장서 관리기구를 설치해 전문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51%로 가장 많았다. 또 27.3%는 이미 훼손된 성보문화재 복구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미술의 해를 맞아 화가스님들이 계획한 스님은 양로원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도 7월쯤에 가질 계획이다.

통도사 추사암에서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수인스님도 5월 중순경에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스님의 전시회는 운현궁 미술관에서 한 언론사의 초청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사대장경 불사를 추진중인 성파스님은 오는 4월11일부터 16일까지 프레스센터 서울갤러리에서 사경작품전을 갖는다. 이 전시에서 스님은 직접 개발한 천연 감지에 금으로 쓴 금강경, 반야심경, 아미타경 등의 사경작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양로원 불사에 바쁜 성리암 법성스님도 가을에 색채화 개인전을 가질 예정이다. 4월에는 국제선명회가 유럽지역에서 개최하는 작품전에도 참여할

계획인 스님은 양로원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도 7월쯤에 가질 계획이다.

통도사 추사암에서 그림에 몰두하고 있는 수인스님도 5월 중순경에 전시회를 가질 계획이다. 스님의 전시회는 운현궁 미술관에서 한 언론사의 초청으로

마련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도사대장경 불사를 추진중인 성파스님은 오는 4월11일부터 16일까지 프레스센터 서울갤러리에서 사경작품전을 갖는다. 이 전시에서 스님은 직접 개발한 천연 감지에 금으로 쓴 금강경, 반야심경, 아미타경 등의 사경작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제주에서 활동중인 일장스님은 개인전을 가질 계획은 없지만 각종 불사나 기금모금을 위한 교계내의 작품전에는 기꺼이 작품을 내놓겠다는 생각이.

지난해 11월 '우주를 만난 회화, 만다라전'을 열었던 도일스님은 작품의 중심테마인 만다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수행 체험을 위해 9월쯤에 티벳으로 떠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스님은 티벳 인도등지를 기행하며 체험을 통한 그림의 주제찾기 작업을 해 보다 구체화된 만다라의 세계를 묘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에 동양화 전시회를 가졌던 원학스님은 그간 소홀했던 단체전에 두루 참여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스님은 삽화가 들어오는데로 전시회의 성격이 자신의 화풍과 맞으면 기꺼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각·회화에 이어 설치미술의 경지를 넓게 펼쳐 보인 성룡스님도 금년에는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세워 놓고 있다. 스님은 지난해에 가진 설치 미술전 「근」으로 미술평론가들에 의해 94년에 가장 돋보인 미술인으로 꼽히기도 했다.

이와관련 9월에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스님의 작품과 국수호씨의 무용이 어우러지는 공연도 마련될 계획이다. 또 스님은 봄에 개인전과 설치미술전을 가질 계획이며 여름에는 시카고와 토론토등지에서도 초대전을 갖는다. 이밖에도 스님은 몇개의 개인전과 단체전을 구상중이며 여러군데서 전시 제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화로 잘 알려진 통척스님은 최근의 토굴에서 작업에 몰두하고 있는데 스님은 지난해에 이어 「선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10월쯤에 가질 생각이다. 스님의 이 전시는 서울과 부산 광주지역을 순회하며 열리게 된다.

논산훈린소 연무사 설립전간담 기금마련을 위한 전시회를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세종문화회관에서 열은 신년 벽두를 장식한 설봉스님은 올해 심장병어린이들과 무의탁 노인들을 위한 성금모금 전시회를 봄과 가을에 개최한다. 심장병어린이를 위한 전시회는 3월에, 무의탁노인을 위한 전시회는 가을에 가질 계획이며 이들 전시회에 스님은 도예작품과 생활도자기 마나석등을 내놓을 생각이다. 또한 스님은 부산의 토항로로부터 일본 초청전도 섭외받고 있어 해외 진출의 문도 열 것으로 기대된다.

<임연태기자>

영화평

리틀부다



동양의 신비가 담긴 영화 리틀부다의 한장면.

라마승 환생통해 '깨달음' 제시

네팔풍물 불만... 윤회 참뜻 변질우려도

리틀 부다는 마지막 황제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감독이 3천5백여 달러의 제작비를 투입,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그의 또하나의 역작이다.

내용은 우리에게도 다소 낯설은 티벳불교의 전통인 환생 제도를 다루고 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 라마가 콘라드 부부의 아들 제시가 그의 환생한 스승임을 알아 보는데서 시작된다. 이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부단에서 3명의 라마로 구성된 조사단이 파견된다. 이 라마들의 출현은 미국의 평범한 가정에서 큰 충격을 남기고 소년 제시는 부단으로 떠난다. 극의 진행을 따라 제시는 새로운 땅, 새로운 세계에서 고마타 시타르타가 깨달음을 얻어 사카무니 부다가 되기까지의 삶을 배운다.

웅대한 스케일로 펼쳐지는 동양의 신비는 서구인을 매료시킬 충분한 소재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문화와 환생에 대한 서구인들의 인식에 다소 우려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불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본래 죽음도 태어남도 없지만 업과 인연의 결과에 따라 형상으로 나타내어 윤회를 거듭한다. 그러므로 현재를 보면 과거를 알 수 있고 현재의 생각과 행동 속에 미래도 함께 담겨있는 것이므로 윤회가 주는 가르침은 개인으로 하여금 현재에 더욱 깨어있고 책임감을 지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게 하는 데 그 근본정신이 있다. 그러나 이 사상에 낯선 사람들에게는 윤회나 환생이 지칫 동화속의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여 진생의 양, 내생의 세계지도자를 꿈꾸는 허황한 사상으로 전락해 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또한 내용의 전개를 통해서도 만족할 수 없는 여러 장면들에 부딪힌다.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은 시타르타 태자의 생애속에서 관객은 그의 생로병사에 대한 고뇌를 읽어내고 공감할 수 있다는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매력없는 아내로부터 누구라도 도망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정도로 회화화 되어 제목 자체에서 이미 드러나듯 부다의 무게가 감해진다.

언어를 넘어선 무언의 교감, 언어 이전에 표현되는 보살행 보다는 끊임없이 자비를 살피면서도 어떤 자비행도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는 승려들의 행동은 불교를 오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물결을 거슬러그릇을 띄워 흐르게 하는 장면은 물위를 걸었다는 예수의 기적에 부처님을 대비시키려는 흔적으로 보이까지 한다.

이런 흠들을 제외한다면 이 영화는 현대인에게 불교의 메시지를 새로운 이미지로 전달했다고 평해진다. 실제의 라마가 분장한 라마들의 섬세한 동작 하나하나에서 느껴지는 암시, 이전에는 공개된 적이 없는 네팔과 부단의 여러 사원에서 느껴지는 생생한 현장감, 델리에서 온 소년 라마가 주는 활력, 대라마의 입종에 이르면서 새로운 힘과 파트스를 얻을 때 분위기는 고조되어 침묵으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감독의 역량을 엿보게 한다. 흰 천에 싸인 라마의 시선이 녹은 양초처럼 보일 때에는 생자필멸과 자아의 유약성의 의미를 전해주고도 남음이 있다. 풍광에 이를 수록 관객은 마침내 사원의 고요한 독경소리와 같은 분위기에 압도되어 언어보다 깊은 세계를 맛보게 된다.

<TRICYCLE FALL 1994 반혜·변역·박미영기자>

“ 물어버리자니 장소가 없고, 태워버리자니 냄새가 나고 ... ”

국내 최초로 개발된 '이동식 소형 소각로' 제트 1, 제트 2 가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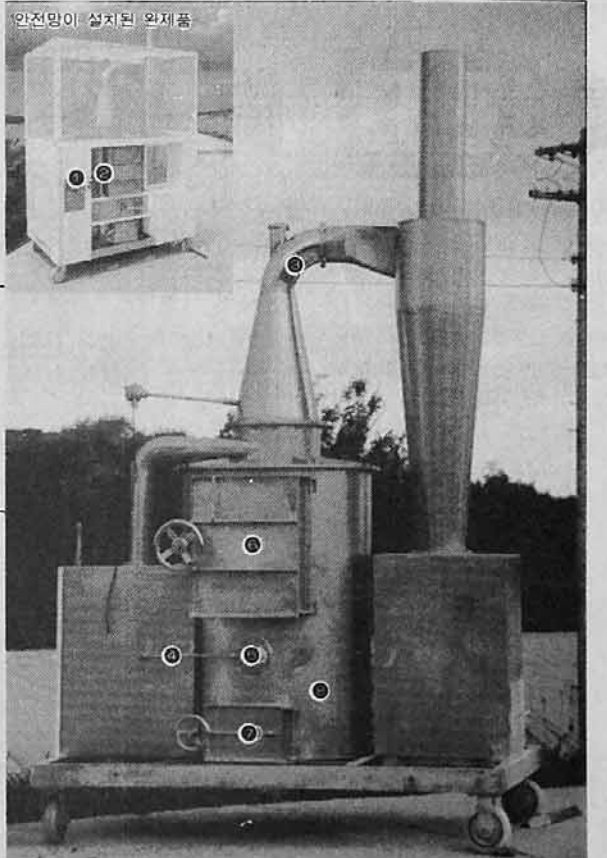
폐 비닐·플라스틱, 생활 쓰레기, 각종 지류, 병인 쓰레기 등 가연성 폐기물이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배연이 없이' 완벽하게 소각·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제트1, 제트2 이동식 소각로는 연소 드럼에 강력한 송풍 장치인 모터 블로워를 장착해 연소통 내에 제트 기류가 형성되도록 함으로써 보조연료의 사용 없이 성냥불만으로 완전 연소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일 회 소각용량은 30kg이며 완전연소에 40분 정도 소요되어 소형 한 대만으로 하루 3톤의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 형, 이동식이므로 넓은 설치 공간이 필요 없고 불박이와는 달리 폐기물이 있는 곳을 따라 옮겨 다니며 소각할 수 있습니다.

발명특허출원 94-8644 의장특허출원 94-8470 8471, 8472



- ① 스팀(배연식)
- ② 공기주입 밸브
- ③ 안전밸브(가스 방출구)
- ④ 냉각기
- ⑤ 냉각용 콘 밸브
- ⑥ 투입구(소각용)
- ⑦ 배출구(연기)
- ⑧ 소각로 내부

환경관리공단 및 생상기술 연구소 성능 검사 합격!!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산업
 본사·공장: 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전화: (0344) 64-7236, 62-3488
 팩스: (0344) 62-7012